

## < 깃털샘과 날개들 >

<b>기획의도</b>	<p>'깃털샘과 날개들'은 현대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역할과 학생 변화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단편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교사가 학생 지도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어느 선까지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특히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시간과 적절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교육적 진실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교사에게는 부담스러운 수업평가를 설정하고 초등 학생들에게 인기있는 티볼이라는 매체로 전달하고자 합니다.</p>
<b>로그라인</b>	<p>깃털처럼 가볍게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기간제 교사가 문제아로 낙인찍힌 학생에게 심판이라는 책임을 맡김으로써, 자신의 평가와 학생의 성장이라는 두 날개를 함께 펼치게 되는 이야기.</p>
<b>시놉시스</b>	<p>20대 후반의 기간제 교사 '깃털샘'은 깃털처럼 아이들에게 편안하게 접근하는 독특한 남자 교사다. 그러나 그의 교육 방식은 관리자입장에서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다. 문제아로 낙인찍힌 6학년 남학생 '율빈'이 같은 반 여학생 '민서'의 팔을 샤프심으로 긁는 사건으로 학부모의 민원이 들어오면서 깃털샘의 기간제 평가가 위태로워진다. 평가를 위한 참관수업 날, 깃털샘은 율빈이 자꾸 다른 학생들과 충돌하는 모습을 본다. 티볼 수업 중 율빈이 팀 구성에 불만을 품고 경기를 망치려 하자, 깃털샘은 반 아이들과 민서까지 울게 만든 율빈을 퇴장시킨다. 그리고 교장과 학부모 참관단이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깃털샘은 위기를 느낀다.</p> <p>그때 뜻밖에도 율빈이 경기의 심판을 보겠다고 나선다. 깃털샘은 자신에게 위험한 결정임을 알면서도 율빈에게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놀랍게도 율빈은 예상 외로 뛰어넘는 공정함과 창의적인 판정 능력을 보여주며 경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간다. 그 모습을 본 교장과 학부모들은 깊은 인상을 받고, 결국 깃털샘은 완벽한 평가를 받게 된다.</p> <p>이 경험을 통해 율빈은 자신이 생각했던 방식과 다르더라도 자신이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깃털샘은 학생들 각자가 가진 고유한 '날개'를 발견하고 펼칠 수 있게 도와주는 교육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된다.</p>

## 트리트먼트<깃털샘과 날개들>

신규교사 기간제 깃털샘 반 학생인 울빈이 다른 여학생 민서의 팔을 샤프심으로 긁은 사건이 발생했고 이와 관련한 교장 선생님의 면담과 함께 이야기는 시작한다. 깃털샘은 상담록을 들고 나가며 실수로 가슴에 달린 호루라기가 울리고, 교장은 한숨을 내쉰다.

복도에서 교감이 깃털샘에게 기간제 평가에 학부모 참관수업이 반영된다는 압박을 준다. 특히 민서의 어머니가 단단히 버르고 있다는 경고를 듣는다.

이러한 외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깃털샘은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즐겁게 놀고 있다. 그는 울빈 어머니의 문자를 받는다 - 울빈이 학교 가는 것을 즐거워하지만 여전히 다른 학생들과 문제를 일으킨다는 내용이다. 잠시 회상으로, 민서 어머니와의 격앙된 전화 통화가 보여진다.

야외 공개수업을 위해 몇몇 학생들이 티볼 장비들을 가지러 체육 창고로 가지러 간다. 울빈, 진호, 경탁, 지우가 운동장 체육 창고에서 티볼 장비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울빈의 지배적이고 경쟁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그는 다른 아이들의 물건을 빼고, 공격적인 언행을 보인다.

운동장으로 돌아와 깃털샘이 티볼 규칙을 설명할 때 울빈은 민서의 깁스 다리를 괴롭히고, 민서가 반격하자 울빈의 성기에 맞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한다. 타격 시범에서 울빈은 어퍼스윙을 제대로 못 하고 진호가 완벽하게 해내자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뜬다.

팀 정하기에서 울빈은 자신이 원하는 팀에 속하지 못하고, 경탁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느낀다. 그는 강하게 항의하지만, 깃털샘은 민주적인 결정을 존중한다.

티볼 경기가 시작되고, 울빈이 속한 하람팀은 불리하게 경기가 진행된다. 울빈은 점점 더 짜증을 내며 결국 글러브를 바닥에 던지고 팀원들을 모욕하자, 깃털샘은 울빈을 퇴장시킨다.

교장과 학부모들이 참관을 위해 운동장에 도착하는 시점에 티볼 경기는 혼란에 빠진다. 심판 판정을 두고 아이들이 다투고, 민서가 울기 시작한다. 교장 선생님의 기지로 학부모 단 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이때 예상치 못하게 울빈이는 자신이 심판을 보겠다고 제안한다. 깃털샘은 위험한 결정임을 알면서도 울빈에게 기회를 준다.

울빈은 놀라운 공정함과 판단력으로 심판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한다. 그는 선을 정확히 긋고, 판정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며, 심지어 진호의 홈런을 규칙에 따라 아웃으로 선언하는 용기를 보인다. 또한 지우에게는 키와 힘을 고려한 배트를 추천하는 배려심도 보인다.

교장과 학부모들은 울빈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는다. 경기의 한창일 때 진호의 강한 타구가 울빈의 머리를 맞는 사고가 발생한다.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울빈은 즉시 "진호 파울!"이라고 외치며 유머 감각을 보인다. 모두가 웃음 속에서 화해하고, 울빈은 티볼 MVP로 선정된다.

교장실에서 깃털샘은 평가 결과를 받는다 - 만점이다. 교장은 민서 어머니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전한다. 깃털샘이 나가며 다시 호루라기가 울리지만, 이번에는 교장과 함께 웃으며 상황을 받아들인다.

# < 깃털샘과 날개들 >

written by 김아솔



깃털샘                      아, 이거요?

깃털샘 호루라기 만진다.

MATCH CUT TO

### #3. 운동장 구령대 (낮)

점심시간. 깃털샘 호루라기 누른다. 삐삐. 깃털샘이 손을 새처럼 파닥거린다. 뒤이어 몇몇 아이들이 따라 한다. 쉬는 시간에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놀고 있다. 현종(13세, 남, 키가 작고 통통함)이가 라인 카트를 이용해서 운동장에 엉겨주춤하며 그리고 있다. 다한(13세, 남)이 애교 댄스를 추고, 연준(13세 남)이 운동장 맨 바닥에서 지렁이처럼 기어 다닌다, 여학생들 서로 업어주기를 하는 등 아이들의 다채로운 모습들이 보인다. 다들 즐거워 보인다. 깃털샘 잠시 멈춘다. 주머니에서 핸드폰 진동 울린다. 깃털샘 핸드폰을 열어본다.

울빈엄마(문자)                      선생님... 우리 울빈이가 선생님 만나고 나서 학교 가는 걸 그렇게 즐거워해요. 그리고 티볼이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혼자 공을 던지고 차고 집에 물건 들이 남아나질 않아요. 아이한테 훈육은 하지만 그래도 많이 밝아진 것 같아서 내심 흐뭇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다른 여학생한테 짓궂게 장난쳤다는데... 다른 아이들하고도 잘 지내면 좋으련만, 집안에 남자 어른이 없어서 그런지 버릇이 없습니다. 괜찮다고 해도 무조건 인정받으려고만 하고... 가정에서도 꾸준히 지도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울빈엄마-

깃털샘 메시지를 보고 시익 웃는다.

깃털샘(문자)                      제가 울빈이 덕분에 학교생활이 즐거운걸요. 울빈이에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깃털샘 하늘을 본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다. 하늘에 깃털이 하나 떠다니고 타이틀이 나온다. 경쾌한 음악이 나온다.

Title: 깃털샘과 날개들

민서(Offscreen)                      선생님 울빈이가요.  
울빈(Offscreen)                      또 샘한테 일러라고?? 루루루 이 일름보야.

Match Cut

### #4. 교실 (낮) - 회상

깃털이 책상 위에 내려앉고 사라진다. 아무도 없는 교실 책상 위에 여러 서류뭉치가 널브러져 있다. 의자 옆 선반에 날개깃털이 몇 가닥 보인다. 깃털샘의 찢절매는 표정과 함께 전화 너머로 민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린다.

민서엄마(V.O)                      (굉장히 격양되어) 아니, 선생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울빈이라는 학생 우리 민서에게 너무 한 거 아니예요?  
깃털샘                                      아 네.



(침착하게) 내가 딱 열 순간에 너가 가져간 거 고만. 얼른 키 내놔.

울빈

니가 뽑아가, 또 바보같이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울빈(CONT'D)

(지우 행동을 따라하면서)아씨 짜증나게 왜 안빠져! 이럴거면서.

문에 꽂혀 있는 열쇠를 그대로 두고 울빈이는 다람쥐처럼 재빨리 체육 창고 안으로 들어간다. 울빈이 창고에서 티볼 관련 물품 바구니를 찾는다. 티볼 공을 본 집어든 울빈이 무언가 생각난 듯 말한다.

울빈

오예 오늘 티볼이다! 오늘 애들 얼굴 다 맞춰버려야지.

경탁

얼굴? 아님 머리통?

울빈

둘 다?

진호

티볼이 무슨 헤드샷이나?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말고 이기기나 해봐. 울빈아. 너 한 번도 이겨본 적 없지?

울빈

아씨... 야 그건 애들이 너무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나는 티볼부도 다니잖아.

진호

꼬우면 너도 다녀라.

경탁

야야. 그러지 말고. 울빈아 우리 둘이 오늘 팀해서 같이 진호 팀 이겨 버리자.

울빈

콜. 진호 너 잘하니까 우리 둘이 팀 먹는다. 알았지?

진호

(잠시 고민하고, 괜찮다는 듯이) 맘, 맘대로 해봐.

지우 한심하다는 듯이 남자아이들의 대화를 지켜본다.

지우

야 그냥 티볼 게임하는거 가지고 뭘 그리 오바하냐. 그리고 오늘 공개수업이라 암전히 해야 될 꼴? 교장샘이랑 엄마들 우리 수업 보러 오잖아.

울빈

(안 들린다는 듯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루루루루~ 경탁이랑 팀 할 거야!

경탁

하긴, 우리 엄마도 온다고 한 것 같은데. 아씨. 싫은데.

경탁 왼 손목 시계를 본다.

경탁(CONT'D)

야 늦겠다. 얼른 챙겨서 가자.

경탁이 티볼 세트 바구니를 들려고 한다. 끄꿍댄다. 지우가 가서 도와준다. 진호도 도와준다. 애들이 체육 창고를 나가려고 하자, 울빈 아이들이 멈춰 세운다. 그리고 손에 빨간 베이스를 보여준다.

울빈

야 1루 베이스! 바구니만 들면 다냐.

울빈이는 집게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잡고 있는 1루 베이스를 아이들이 들고 있는

바구니에 떨어뜨린다.

지우                   야 재는 도와주지는 않고.

울빈이가 그 말에 도와주려고 갔다가 진호가 맞은편에 있는 것을 보고는 배트 하나만 들고 뺀다. 진호 울빈 서로 눈빛 경쟁.

울빈                   더 무거운 거 들어줄게.

울빈이 밖으로 나가 문 앞에 여전히 꽂혀 있는 강당 키를 뽑는다.

울빈(CONT'D)       열쇠도 내가 챙기지.

울빈 배트를 휘두르며 나간다. 아이들 울빈이 한 번 쳐다보고 따라 나간다.

## #6. 교무실 (낮)

교무부장이 커피를 내린다. 교감이 오자 커피를 건넨다.

교감                   어쩐 우리 교무부장님이 타 주시는 커피는 항상 맛있을까? 오늘 학부모 운영위원분들 오는 거 맞죠?

교무부장           네. 곧 오실 예정입니다. 새로 2층 배움실에 새로 설치한 원격수업기자재실 실사 검사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교감                   알아요. 우리 저~기 운동장에서 깃털샘 공개수업 있는 거. 그냥 조용히 교실에서 수업이나 하지. 애들은 말도 지지로 안 듣는 거 같은데, 또 무슨 사고나 안 치나 몰라.

교무부장 대답하며 창문을 본다. 창문 너머로 깃털샘이 아이들과 손으로 날갯짓을 파닥거리며 술래잡기하고 놀고 있다.

## #7-1. 운동장 구령대 (낮)

3명(경탁, 지우, 진호)이 티볼 물품 바구니를 들고 오고 있고, 그 옆에 울빈이 배트를 휘두르며 오고 있다. 깃털샘은 아이들과 술래잡기하다가 지쳐서 구령대 근처에 앉는다. 아이들이 오는 것을 본다.

깃털샘              오우~ 무거웠겠다. 고생했어. 저기에다가 두면 돼. 경기장은 현종이가 벌써 예쁘게 그려놨어.

깃털샘은 손가락으로 운동장 한 부분을 가리키고 현종이가 끙끙대며 이래저래 뺄어낸 선이 보인다. 깃털샘 옆에서 배트를 휘두르며 오고 있는 울빈이를 본다. 그리고 자신의 핸드폰이 들어있는 오른쪽 주머니를 잠시 응시하고 다시 울빈이를 본다.

깃털샘 (뭔가 다짐한 듯) 어? 우리 율빈이는 체육부원도 아닌데 티볼 물품도 가지고 왔네?

깃털샘 빨간 1루 베이스를 보고 놀란다.

깃털샘 1루 베이스는 어떻게 챙겼니? 안 그래도 그거 말하려다가 깜빡했는데. 바구니에 없었을 텐데.

율빈, 배트를 한 손으로 바닥에 집고 자랑스러운 듯 자신을 가리킨다.

율빈 그니깐 저죠!  
깃털샘 역시 율빈이는 전체를 보는 센스가 좋아. 오늘, 이 기세를 몰아서 홈런 가는 거 아니야?

율빈 기분 좋은 듯 멋진 스윙 포즈를 취한다.

율빈 진짜요?

율빈 티볼 배트를 계속 휘두른다.

율빈(CONT'D) 오늘 이 공 쳐가지고 애들 다 맞춰버리려고요.  
깃털샘 (약간 당황하며) 음, 그럼 애들이 전부다. 보건실 가야 하고 시끄러워져서 너가 불편하니까, 홈런 쳐서 이겨버려.  
율빈 무슨 홈런이예요. 맨날 지는데. 그냥 애들이나 맞출래요. 머리통들을 탕탕탕  
깃털샘 음. 아니야. 오늘 홈런의 기운이 왔어. 저 하늘을 봐.

깃털샘 구름을 가리킨다. 율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한다. 율빈이의 시선에 깃털샘이 손으로 날갯짓을 표현하는 것이 보인다.

깃털샘 넌 오늘 멀리멀리 날아갈 거야.  
율빈 (싱거운 듯) 아 뭐예요.

## #7-2. 운동장 구령대 (낮)

깃털샘 티볼 경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하고 갈게요.

깃털샘이 학생들에게 유의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서 있다. 그 옆에 티볼에 사용할 T대, 크기가 다른 배트들, 그리고 글러브와 공들이 들어있는 바구니가 놓여있다. 깃털샘은 온몸을 과장해서 아이들에게 설명한다. 아이들은 깃털샘의 설명을 듣는다.

깃털샘(Off screen) 공격수는 배팅 티를 3번 이상 건들면 안 돼요. 그리고 공을 친 후에 절대 배트를 던지면 안 됩니다. 심판이 시작 선언 후에 10초 동안 공을 치지 않으면 스트라이크입니다. 그리고 던지면 뒤에 있는 친구가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깃털샘 배트에 맞는 시늉을 익살스럽게 한다. 아이들 웃는다. 율빈이가 민서(6학년, 호리호리하고, 적극적인 학생, 오른발에 깁스하고 있음.)뒤에 서 있다. 율빈이가 오른쪽 민서 깁스 발이 재밌어 보이는지 발로 툭툭 친다. 민서가 귀찮아서 그대로 뒷발을 들어서 친다. 율빈이 성기에 맞는다.

율빈                      욱!

경탁, 하람 킁킁댄다. 깃털샘은 민서가 아파서 소리가 난 줄 알고 민서에게 말한다.

깃털샘                      아 민서는 다리가 불편하니 이쪽에 와서 앉아 있으렴.  
민서                              저, 서 있는 거는 괜찮아요. 다 나았는데 며칠 더 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깃털샘                      어 그래. 혹시라도 좀 안 좋으면 말하고.

깃털샘 주변을 돌아보며 말한다.

깃털샘(CONT'D)              이제 타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볼게요. 이걸 누가 해볼까요?

율빈이가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아이들이 따라 든다.

율빈                              저요!  
아이들                            저요!  
율빈                              (주변을 두리번 거리며)내가 젤 먼저 손들고 말했다!

깃털샘 율빈이를 향해 고개를 끄덕인다.

깃털샘(Off screen)            이걸 다운스윙입니다. 땅볼을 칠 때 좋은 타격기법이죠.

율빈 다운스윙으로 공을 친다. 꽤 나름 잘 치고, 끝나고 나서 의기양양한 퍼포먼스.

깃털샘(Off screen)            다음. 레벨 스윙. 빠른 공을 칠 때 유리하죠.

율빈이 레벨스윙으로 공을 친다. 퍼포먼스를 하려다가 멈춤 발이 꼬여서 넘어진다. 아이들이 웃는다.

깃털샘(Off screen)            다음. 어퍼스윙. 홈런처럼 공을 높고 멀리 보낼 때 유리한 타격법입니다.

울빈이 반복해서 어퍼스윙을 하지만 배트에 공이 안 맞는다. 아이들 하나, 둘 수군대며 키득키득 웃는다. 울빈 잠깐 난감해하다가 돌연 짜증을 내며 괜히 배트를 두들겨본다.

울빈                   (짜증내며) 선생님 이거 배트가 이상한데요?  
깃털샘               그래?

깃털샘 배트를 살펴본다.

깃털샘(CONT'D)   (배트를 살펴보고) 여기 배트가 좀 파였네. 울빈이 대신에 어퍼스윙만 누가 쳐 볼까?

깃털샘 고개를 돌린다. 능름하게 혼자 손들고 있는 진호. 깃털샘 고개를 끄덕인다. 진호가 의기양양하게 나온다. 진호 가볍게 공을 T대 위에 올린 후 어퍼스윙으로 공을 날려 버린다.

아이들               와~~~!  
지우                 울빈이랑은 역시 다르구만.

울빈이 시범을 보인 진호를 보니 갑자기 속이 뒤틀린다.

울빈                 아씨 짜증나. 배트가 이상하네.

울빈 갑자기 배를 움켜쥔다.

울빈(CONT'D)      선생님?  
깃털샘             응 왜?  
울빈                저 갑자기 똥마려요.  
깃털샘             뭐라고?  
울빈                똥이요 똥!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당황한 깃털샘의 얼굴을 뒤로하고, 울빈은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간다.

### #7-3. 운동장 구령대 (낮)

맑은 하늘. 푸르른 나무들. 녹목. 바닥에 떨어진 티볼이 포커스인 되어 있으면서 뒤로는 아이들과 교사가 흐릿하게 보인다.

깃털샘             우리 반에 티볼 왕 두 명 누구지?  
아이들             진호요. 하람이요! 저요!  
깃털샘             진호랑 하람이가 가위바위보!

잠시 후.

진호와 하람이가 가위바위보를 할 때마다 컷이 바뀌면서 주변에 학생들이 한명 두명씩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다.

깃털샘                      울빈이 오늘은 느낌이 좋았잖아. 할 수 있어!  
울빈                              아 샘. 이건 아니에요. 아 다시 뽑아요 다시!

하람, 울빈이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고 귓속말로 조용히 말한다.

하람                              야야 그냥 해. 짜들 암것도 아니야. 그리고 진호는 달리기가  
    느려. 경타이는 보통 땅볼이라 금방 잡히고. 우리가 카바칠 수  
    있어. 야 지난번에도 우리 팀이 홈런으로 10대 3으로 이겼잖아.  
울빈                                      ..  
깃털샘                              (모른 척하며) 자자, 그럼 선생님이 심판보고, 경기 시작하자~

민서 갑자기 나선다.

민서                                      저 부심하고 싶어요.  
깃털샘                              깃스도 아직 안 풀었는데, 그냥 쉬고 있는 게 낫지 않겠니?  
울빈                                      선민서 아까 저한테 발길질도 잘하던데요!  
다한                                      맞아요. 그래서 거시기 맞았어요!  
깃털샘                                      거시기?

민서 좀 무안해한다. 아이들 웃는다. 깃털샘 씩 웃는다.

FADE OUT

## #8 운동장 티볼 경기장 (낮)

티볼 경기가 한창이다.

아이들                              김진호! 김진호!

대기선에 서 있는 공격팀 아이들 진호를 응원한다. 진호가 배트를 들고 오고 베이스에 선다. 배트를 자연스럽게 돌리며 강렬하게 공과 타격 목표지를 번갈아 본다. 반면에 울빈이 팀은 자세도 엉거주춤하고 글러브를 낀 손들도 엉성해 보인다. 몇몇 아이들은 글러브를 낀 손을 바닥을 향해 내려놓은 아이들도 있다. 진호 팀이 공을 멀리 친다. 울빈이팀, 공을 감히 잡을 엄두도 내지 못한다. 진호 가볍게 2루까지 뛰어간다. 울빈, 불평하기 시작한다.

울빈                                      아씨 저걸 어떻게 잡아. 짜증나네.

상대 팀에서 이번엔 여학생 지우가 공을 친다. 공을 어설프게 친다. 교사 파울을 외친다.



울빈이 바닥에 글러브를 던진다. 하람이 흥분한다.

하람                      선생님 애가 글러브 바닥에 던져요!

깃털샘 등장한다. 잠시 차분한 목소리로

깃털샘                      울빈아

울빈이 들리지 않는 듯

울빈                      너는 괜히 할 말 없으니까 담임샘 부르냐 이 겁쟁이야! 그니까 팀도 허약해 빠져가지고.

하람                      너 지금 뭐라 했냐.

깃털샘                      (큰소리로) 정울빈! 퇴장!

울빈이 바닥에 떨어진 글러브를 경기장 바깥으로 찬다. 깃털샘 당황하지만 애써

깃털샘                      처음 있는 일 아니니깐 하던대로 진행하세요.

울빈이는 응원석에 혼자 앉고, 아이들은 다시 경기를 진행한다.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온다. 울빈이는 자기 팀, 그리고 상대 팀 모두를 야유한다.

울빈                      (작은 목소리로 손짓과 함께)하람이팀 져라~ 져라~ , 진호팀도 져라 져라, 다 져라져라~

하지만 울빈이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 아이들은 못 들은 척 경기를 진행한다. 1루에 있던 유나는 내야로 빠지고 센터 하람이가 1루로 와있고, 센터에 남학생 연준이가 와 있다. 하람이 얼굴에 분노가 가득하다. 깃털샘 염려스럽게 아이들을 바라본다. 옆 점수판이 보인다. 현재 점수 2:0. 남학생1이 타석에 들어선다. 소심하게 친다. 2루 향한 땅볼이다. 공을 바로 패스해서 1루 수비수 하람이에게 던지고 하람이는 이를 받는다. 이와 동시에 공격수 남학생1이 1루 베이스를 밟는다. 바로 앞에 서 있던 민서 제대로 보지 못했다.

하람                      아웃!!

진호                      세이브~!

양 팀 모두 각자 아웃과 세이브를 외친다. 깃털샘, 민서 등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

깃털샘                      민서야 ?

민서                      저 그게... 잘 모르겠어요.

경탁                      아 뭐야 진짜.

하람                      이거 아웃 맞잖아. 내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먼저 찍었잖아.

진호                      이거 심판 바뀌야 되는 거 아니야?

하람                    그래 이거는 당연히 봐야 되는거지. 몸도 아픈데 괜히 한다고 해가지고. 샘이 보면 되는데.

민서 점점 울먹인다. 울빈이 이 상황을 고소해한다.

울빈                    싸워라. 싸워라.

깃털샘 울빈에게 다가간다.

깃털샘                야 김울빈!

화가 난 깃털샘 울빈이에게 뭔가를 말 하려고 하다가 울빈이 어머니와 교감선생님의 당부를 떠올린다.

울빈 엄마(V.O)     선생님. 우리 울빈이가 선생님 만나고 나서 학교 가는 걸 그렇게 즐거워해요

교감(V.O)            이번 주에 있을 기간제 평가에 학부모 참관수업 반영되는 거 알고 있지? 지금 민서 어머니가 단단히 버르고 있는데 준비 잘해.

깃털샘,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한 뒤 울빈에게 말한다.

깃털샘                울빈아 넌 내가 이기고 주목받는 것만 좋지?  
(민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기 저 민서 모습은 안 보이고 그치?

깃털샘 아이들에게 다가간다. 울빈 고개를 숙이며 바닥의 돌을 집어 들고 혼잣말 한다.

울빈                    (혼잣말로 속삭이며) 애들이 화가나게 만드니깐 화를 내는거지 뭐.

울빈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본다.

민서                    야 내가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고, 좀 심한거 아니야? 내가 심판 제대로 못 본거는 미안한데! 안 하면 되잖아!

민서는 울기 시작한다. 여학생들 민서에게 다 물러가고 다독여준다. 분위기가 우왕좌왕해진다. 이때 민서 뒤로 멀리서 교장, 교감, 교무부장, 학부모위원 3명이 걸어오는 것이 보인다.

## #9. 운동장 계단 (낮)

교장, 교감, 교무부장, 학부모위원 3명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다. 교장은 멀리서 깃털샘 티볼 수업이 심상치 않다고 느낀다.

교장                    아참 여러분 우리 수업을 참관하기 전에 새로 만든 원격수업실에 잠깐 들렀다가 나올까요? 아직 수업시간도 많이 남았구요.

교장, 교감에게 눈짓을 한다.

교감 (눈치를 이해하고)새롭게 만든 수업실이 신통방통합니다. 유튜브 해도 되겠어요.

민서엄마 맞아요. 우리 민서가 몇 번 그런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장은 이야기를 창가를 보면서 톡톡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본다.

## #10. 운동장 티볼 경기장 (낮)

현중 이렇거면 왜 티볼하고 그래. 그냥 교실 들어가지.

깃털샘 애들아 샘이 잘 못 했다. 샘이 심판을 잘 봤어야 되는데, 들어 갈까? 계속 할까?

진호 이거 할려고 창고에서 티볼세트 힘들게 가져왔는데.

지우 난 별로 안 힘들었는데? 난 힘이 세거든.

웅성웅성 대는 소리에 깃털샘 당황한다. 주변을 둘러본다. 다행히 평가단 일행이 보이지 않는다. 안도의 한숨을 쉰다. 이때 깃털샘 등 뒤에서 울빈이 다가온다.

울빈 선생님! 제가 심판할게요.

아이들, 깃털샘 울빈이 쳐다본다.

울빈 어차피 오늘 공도 잘 안 맞고, 제가 되고 싶은 팀도 아니잖아요. 제가 주심하고 민서가 부심할게요. 애들 다 아웃 시킬려구요. 야 선민서 울지 말고 같이 해. 아까 내 거시기 찰 때는 신나하더니.

민서 울다가 그 말을 듣고 웃음이 살짝 터져 나온다. 아이들 멍뚱멍뚱 이 상황을 쳐다본다. 그러다가 현중이 나선다.

현중 니가 무슨 심판이야.

지우 왜~ 울빈이가 룰은 잘 알잖아.

유나 그렇긴 한데, 재가 공정하게 보겠어?

진호 그리고 너는 하람이 팀이었잖아.

울빈 너 아까 내가 우리팀 애들한테 화내는거 안 봤냐?

진호 ...

하람 네가 심판하면 우리 팀 한명 부족해지는데?

울빈 너희 팀 한 몫 더 줄게.

하람 오케이 콜.



울빈 고개를 끄덕인다.

### #13-1. 운동장 티볼 경기장 (낮)

깃털샘                      경기도중에 모이게 해서 미안합니다. 지금부터 울빈 학생이 주심으로 하고 민서가 보조 심판으로 역할을 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깃털샘이 호루라기와 심판 조끼를 울빈에게 하사한다. 민서가 울빈이 쳐다보고 울빈이 멋쩍어한다. 하람, 진호 불만을 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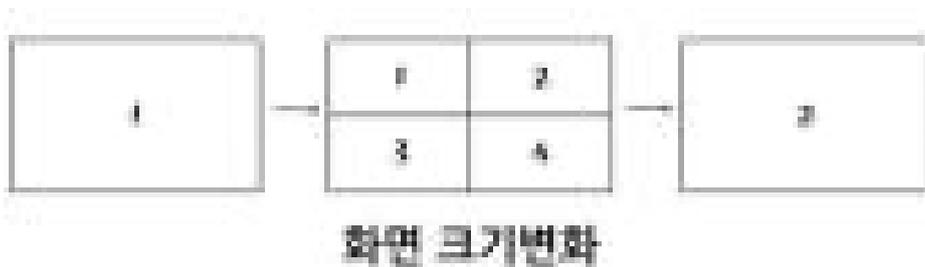
하람                      또 막 화내고 그럴 것 같은데요.  
진호                      재가 무슨 심판을 해요? 우기기나 할 것 같은데  
울빈                      너만 제대로 하면...

깃털샘이 말을 가로막는다.

깃털샘                      (울빈이를 보며)울빈아.  
(아이들을 보며) 존칭어로 여러분을 대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판정 문제로 민서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아이들                      네.  
다한                      선생님?  
깃털샘                      응?  
다한                      저기 울빈이..

Montage - 울빈이의 심판활약



1. 울빈이가 경기장을 라인카트를 가지고 파울선을 추가한다. 그리고 화면 보고 씨익 웃는다.
2. 울빈, 원할한 수비 공격 분리를 위해 1루에 공격팀과 수비팀 베이스를 분리 한다. 그리고 씨익 웃는다.

3. 율빈이가 심판복과 모자를 쓰고 근엄하게 서 있다.
4. 율빈이가 아웃과 파울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설명한다.

End Montage

### #13-2 운동장 티볼 경기장 (낮) (Continued)

양 팀 모두 땀과 함께 긴장한 모습들. 진호 팀원들을 한번 쳐다보고 난 후 리더로서의 멋진 모습으로 타격을 한다. 홈런이다. 아이들이 모두 입을 떡 벌린다. 진호가 긴장한 모습을 풀고 미소지며 의기양양하게 뛰어 가려고 한다.(Slow)

율빈                      아웃!  
진호                      아니.

율빈이 아무말도 하지 않고, 돋보기를 가지고 진호가 있었던 타석 자리를 확인한다

율빈                      아웃!  
진호                      야 뭘소리야 이게 왜 아웃이야. 홈런이지.

진호 정신이 나갈 듯 흥분한다. 진호와 같은 팀 경탁이가 다가온다. 율빈이가 돋보기를 가지고 살펴본다.

경탁                      어랏, 선 밟았네.  
깃털샘                  다음 선수.

다음 진호팀 여학생1 공격을 한다. 공이 1루 근처로 떨어진다. 1루로 달려간다. 수비공과 1루 베이스가 시간이 거의 똑같다. 각 팀에서 서로 자신이 맞다며 주장하기 시작한다.

진호                      야 이거 세이프 이잖아.  
하람                      뭘소리야. 아웃이지.

1루에 있는 보조 심판 민서 또 당황한다. 아이들이 율빈이를 쳐다본다. 율빈 씩 웃는다. 핸드폰을 꺼내어 율빈이가 촬영한 슬로우 모션장면을 보여준다. 양팀 아이들 탄식과 함께 환호성이 터져 나온다. 수비팀이 더 빨라서 아웃이 되었다. 이익제기 하던 아이들은 돌아가고, 민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율빈이를 힐끗 바라본다.

Montage

율빈이가 1루수 근처에 핸드폰을 설치하는 장면.

End Montage

### #13-3. 운동장 티볼 경기장 ( 낮) (Continued)

지우 여학생 차례, 배트를 휘두른다. 공이 나갔다 수비수가 공을 받아 바로 1루수 학생이 받는다.

진호팀 아이들                      파울~!!



